

<江都夢遊錄>에 나타난 역사적 상처와 형상화 방식*

정 총 권**

차 례

- | | |
|---------------------------------|--------------------|
| I. 머리말 | IV. 역사적 상처 형상화의 실상 |
| II. 역사적 상처로서의 江都 失陷 | V. 맺음말 |
| III. 희생자 여인들의 발화에 나타난
정서와 의식 | |

I. 머리말

夢遊錄에 대한 비교적 이른 시기의 연구는 그 갈래적 특성을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꿈 속 내용이 작품 외적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서사적 교술이라 보아야 한다는 것,¹⁾ 역사적 모순이 심화되던 조선 중기 양반 관료 사회라는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사대부 작

* 이 논문은 2006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충북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서대석, 『몽유록의 장르적 성격과 문학사적 의의』, 『한국학논집』 3, 계명대, 1975, 138-143쪽.

가들의 주관적 이상 또는 의지를 실현하려는 욕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²⁾ 傳奇의 전통을 이어 16세기 중엽 이후 그 유형성을 확보하면서 부각되었다가 17세기에는 몽유 양식의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해 갔다는 것³⁾ 등이 그러한 논의들이다.⁴⁾ 이러한 기존 논의들을 종합한다면, 몽유록은 작자가 알고 있는 사실이나 지식을 꿈이라는 문학적 장치에 얹어 작자의 문제적 의식을 토로하는 이념 우위의 갈래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그런데 개개 작품 차원의 논의에서는 몽유록의 시대별 유형별 차이점이 중요시되고 있는 바, 대체로 16세기의 작품들에 비해 17세기의 작품들이, 사태의 진상을 폭로한다는 작자의 목적 의식이 강해지며 형상화 방식도 다양해진다고 보고 있다.⁵⁾ ‘夢遊’의 문학적 내포에 더 충실해진다는 것이다. <江都夢遊錄>⁶⁾은 그러한 작품들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작품이다. 江都敗沒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책임 소재를 엄밀히 규명하

- 2) 정학성, 『몽유록의 역사의식과 유형적 특징』, 『관악어문연구』 2,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77.
- 3) 신재홍, 『한국몽유소설연구』, 계명문화사, 1994, 97쪽.
- 4) 이 외에 몽유록의 갈래적 특성을 다룬 주요 논의들은 일찍이 서대석이 시도한 몽유록 유형 분류의 시각을 수용하여 몽유록의 서술유형을 살핀 양언석, 『몽유록 소설의 서술유형연구』, 국학자료원, 1996, 몽유록 작자인 사대부가 처한 시대적 현실을 주목하면서 조선 중기 몽유록의 주제 의식에 대해 논한 신해진, 『조선중기 몽유록의 연구』, 박이정, 1998, 16세기의 몽유록은 서사적 흥미를 통한 이념적 교화라는 태생적 모순 하에 형성된 것으로 형식과 이데올로기가 불일치하는 갈래임을 논의한 조현실, 『형식과 이데올로기의 불화 -16세기 몽유록의 생성과 전개-』, 『민족문학사연구』 25, 민족문학사학회, 2004, 몽유록이 조선후기에도 다채로운 면면을 드러내면서 존재했다고 하며 그 구체적인 양상을 드러낸 김정녀, 『조선후기 몽유록의 구도와 전개』, 보고서, 2005 등이 있다.
- 5) 정학성, 앞의 글에서는 <大觀齋夢遊錄>, <泗水夢遊錄>, <金華寺夢遊錄>이 享樂的, 反動的, 理念擁護的이라면, <元生夢遊錄>, <達川夢遊錄>, <江都夢遊錄>, <皮生冥夢錄>은 告發的, 悲劇的, 主情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신재홍, 앞의 책, 97-141쪽 및 김정녀, 앞의 책, 57-180쪽도 함께 참조할 것.
- 6) <강도몽유록> 텍스트로는 김기동 편, 『필사본 고전소설전집』 3, 아세아문화사, 1980, 201-220쪽의 것을 택했다.

러는 작자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면서, 그것을, 당시 갑작스런 죽음을 당한 이름 없는 희생자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작자의 의도 내지 문제 의식이 드러나 있는 것이야 여타 몽유록과 다를 바 없지만, 꿈 속 등장인물들이 ‘일방적이고 부조리한 희생’을 강요당했던 여성들이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라는 것이다.

기존 논의에서는 이들 여성이 당시 실제 인물들의 부인 혹은 며느리 들임을 밝히는 한편,⁷⁾ 작자의 의도와 관련하여 그러한 여성들을 화자로 설정함으로써 관리들의 무능과 失政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는 점을 드러내는 데 치중해 왔다.⁸⁾ 작자가 역사 속 인물을 등장시켜 자신의 이념적 세계를 가공하거나 특정 사태를 비판하는 것은 몽유록의 갈래적 관습이라 할 수 있으며, <강도몽유록> 역시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음은 분명하다. 비판 대상이 되는 인물의 가족을 등장시켜 그 인물을 비판하게 함으로써 작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방식은 <피생명몽록>에서도 발견되는 바다.⁹⁾ <강도몽유록>에서 공신 관료의 부인 혹은 며느리를 내세운 것도 그 공신 관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¹⁰⁾ 그리고 江都失陷이라는 역사적 치욕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강도몽유록>의 이러한 창작 의도 내지는 작자 의식에 대해 주목한 것은 당연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그 무엇인가가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 여인들은 공신 관료의

7) 김기동, 『<강도몽유록>고』, 『논문집』 2, 동국대, 1965 ; 서대석, 앞의 글 ; 양인석, 앞의 책, 261-280쪽.

8) 신재홍, 앞의 책, 128-131쪽 ; 김정녀, 앞의 책, 63-79쪽 ; 조혜란, 『<강도몽유록> 연구』, 『고소설연구』 11, 한국고소설학회, 2000, 347-348쪽 등 참조.

9) 지연숙, 『<피생명몽록> 연구 -작자의 창작의도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23, 우리어문학회, 2004에서는 <피생명몽록>이 작자가 이극신을 吏曹佐郎의 지위로부터 끌어내릴 목적으로 창작된 것으로 본다.

10) 김정녀, 앞의 책, 76-77쪽의 경우, 등장인물들이 인조반정 공신의 부인이거나 며느리인 점에 주목하여 작자의 궁극적인 의도는 자신들이 내세운 명분에 모순되는 행동을 자행한 이들 공신에 대한 비판에 있다고 보았다.

부인이자 며느리이기 이전에, 어찌할 수 없는 사태에 내던져져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강도 실함의 희생자가 된 여인들이라는 점을 되새겨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이 ‘내던져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의 그들 죽음의 ‘부조리함’에 대해 고려함이 없다면 그 어떠한 언어적 진술들도 그녀들의 진실에 결코 다가서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언어적 진술을 시도했다면 그녀들의 진실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강도몽유록>은 그 형상화 방식의 측면에서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본다. 희생자의 관점에 설 때 그녀들의 죽음은 실은 그 어떠한 재현도 불가능하며 때로는 그것 자체가 허락되지 않는 죽음이다. 그 누구도 그녀들의 입장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녀들의 목소리를 복원시켜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그녀들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제3자의 행위는, 설혹 그것이 그 원혼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또다른 차원의 언어적 폭력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녀들의 원혼을 등장시킨 작자의 의도에 대해 다시 환기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의도가 작품 속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가 하는 점을 섬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관점에 서더라도 본고는 결국 이 작품이, 작자의 의도가 두드러지는 이념 우위의 작품이라는 기존 통설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작자의 의도가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작업이 얼마만큼 정당성을 지닌 것인지는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 작품에 대해 정절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폭로했다거나 인간적 감정을 긍정했다거나 하는 찬사¹¹⁾를 덧붙일 수만은 없을 수도

11) 조혜란, 앞의 글, 348-352쪽. 물론 이 글에서는 작품 설정이 결과적으로 가부장 사회가 갖는 허구성을 우회적으로 폭로한 것이 된다고 보고 있으며, 열녀전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인간적 감정 긍정이라는 의미를 찾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뒤에 자리잡은 작자의 의도와 작품 실상 간의 괴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있다는 것이다. 본고는 <강도몽유록>에 나타난 역사적 상처 형상화 방식을 통해, 누군가의 죽음 혹은 역사적 상처를 제재로 하여 무엇인가를 말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 작업은 결국 <강도몽유록>의 작품 특성을 제대로 규명하는 작업에 해당하리라 생각한다.

II. 역사적 상처로서의 江都 失陷

병자호란은 청의 태종이 명나라 본토로 진출하기에 앞서 후방의 반청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침략 행위였다.¹²⁾ 이때의 청은 10년 전 정묘호란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성해진 상태였다. 청의 도발에 대해 우리 조정에서는 斥和와 主和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 바 있었다. 조선의 군은 거의가 보병이며 전투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화쪽으로 기움으로써 결과적으로 더욱 큰 피해를 야기했던 것이다.

근근히 방어망을 유지하던 조선 조정은 1637년 1월 26일 강화도가 청에 의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급격히 전의를 상실했다. 강화도는 왕자와 비빈, 조정 신료들의 가족들이 피난해 있던 곳이었으며 역대 국왕들의 신주가 모셔져 있던 곳이었다. 인조는 끝내 남한산성으로부터 나와 청나라 식의 굴욕적인 降禮를 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사대부에게 있어 조선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국왕이 일개 오랑캐 앞에서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린 데 대한 치욕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당시 기록물에 의거할 때 강도 실패는 金慶徵과 같은 수장들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에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12) 유승주, 「병자호란의 전황과 금화전투 일고」, 『史叢』 55, 역사학연구회, 2002, 389쪽.

<강도몽유록> 아홉 번째 여인의 말처럼, 새도 지나가기 어려운(鳥亦難過) 그곳에 불의의 무리들이 난입한 것은 時運이 아닌 人災 때문이었다. 그렇게 쉽게 함락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기에 강도에서는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으며,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오히려 그 피해를 가중시키기도 했었다.

그때의 강화도에서는 특히 여인들의 피해가 컸다고 한다.

그 밖에 다른 부인들이 절개를 위하여 죽은 것은 모두 기록할 수 없었으며, 천인(賤人)의 아내와 첩도 또한 자결한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또> 적에게 사로 잡히어 적진에 이르러 옥을 보지 않고 죽은 자와 바위나 숲 속에 숨었다가 적에게 퍽박을 당하여 물에 떨어져 죽은 자, 그 수를 알 수 없었다. 사람들이 전하기를, “머리 수건이 물에 떠있는 것이 마치 물에 떠있는 낙엽이 바람을 따라 떠다니는 것 같았다” 하였다.(『燃藜室記述』 卷26)¹³⁾

머리 수건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마치 낙엽이 바람을 따라 떠다니는 것 같았다는 말밖에는 더 이상의 표현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때의 그곳에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국가 간 이익을 위한 전쟁이건 외적의 침입에 의한 변란이건 그것이 개인에게 미치는 결과는 엄청나다. 그로 인해 삶의 근원적 기반이 허물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다가 온 세계의 황포에 대해 인간은 무기력할 뿐이다. 그들이 죽음을 당한 이유라고는 단지 이곳 백성으로 태어나 그때 그곳에 있었다는 점일 뿐이다.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선택권만을 ‘어쩔 수 없이’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때문에 우리는 그 여인들의 죽음을 부조리한 죽음이라 부를 수밖에 없다.

강도실함은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규명해야 했다. 이때 다시 그 부조

13)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연려실기술』 VI, 1967, 251쪽.

리한 죽음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으며 살아남은 가족에게는 그러한 행위 자체가 상처를 덧나게 하는 일이었다. 살아남은 여인들이 돌아갈 곳은 없었으며,¹⁴⁾ 유가족들 중에는 아예 出仕를 거부하는 일도 벌어졌다.¹⁵⁾ 강도실함은 죽은 자들에게도 살아남은 자들에게도 크나큰 역사적 상처였던 것이다.

Ⅲ. 희생자 여인들의 발화에 나타난 정서와 의식

그렇다면 <강도몽유록>의 작자가 이러한 역사적 상처를 건드린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도 몽유록이라는 갈래를 통해, 왜 하필 희생자 ‘여인’들을 등장시켜 말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가.

물론, ‘節死’한 여인의 원혼을 등장시켜 삶의 부조리함을 폭로하는 문학적 설정은 이미 <이생규장전> 같은 작품에서도 발견되므로 새로운 것은 없다. 몽유자의 꿈 속에 죽은 자를 등장시켜 말하게 하는 것 역시 이미 존재하던 몽유록의 문학적 관습이었다. 하지만 ‘절사’한 여인의 원혼을 몽유자의 꿈 속에 등장시켜 말하게 하는 식의 설정은 <강도몽유록> 고유의 특성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몽유록 양식의 본령이, 작자가 등장인물의 발화에까지 침투하여 그의 이념적 가상을 투영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강도몽유록>은 그 죽음의 부조리함으로 인해 여타 몽유록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녀들의 발화에 나타난 정서나

14) 『연려실기술』 권26에는 적병에게 끌려 갔다가 贖還된 여인의 문제가 제시되어 있다. 절개를 잃은 여자와 재결합하여 선조의 제사를 받들게 할 수 없다고 하여 아들을 다시 장가 들이고자 하는 일도 있었다 한다. 이는 임병 양란 후의 큰 사회적 문제였다.

15) 1663년 당시 수찬으로 재직하고 있던 金萬均이, 자신의 조모가 강화도에서 죽었다는 것을 이유로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대열에 끼지 못하게 사퇴를 요청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명기, 『병자호란의 패전과 출사관』, 『명지사론』 14·15, 명지사학회, 2004, 219-224쪽 참조

의식에 대한 섬세한 변별적 분석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강도몽유록>에는 14명의 여인이 등장하여 각자의 사연을 이야기한다. 이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이 자신들 주변의 남성들이 무능했거나 무책임했음을 비난하고 있다.

종묘 사직이 수치를 당하였으니 참혹하여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아, 이 죽음이 하늘의 뜻인가요 귀신의 짓인가요. 진실로 그 까닭을 찾아본즉 이에 이르게 한 자는 바로 낭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하나 공론을 살피지 않고 사사로운 정을 품어 江都의 중임을 어린아이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부귀를 누리고 꽃과 달에 취함을 즐기며 앞날을 헤아리는 일을 잊어버리니 軍務를 어찌 알겠습니까. 강이 깊지 않음이 아니요, 성이 높지 않음이 아닌데, 대사를 이미 그르쳤으니 죽는 것이 또한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허물이니 어찌 책임이 그에게만 있겠습니까. 아, 나의 죽음은 기꺼이 자결한 것이니 진실로 마땅한 바로서 한이 될 것은 없습니다. 생각건대 이 외아들은 살아서 보국함이 없었고 죽어서도 또한 죄가 있으니, 천년의 악명은 큰 바닷물로도 씻기 어렵고 첩첩이 쌓인 恨은 가슴에 가득하여 잇을 날이 없습니다. (<강도몽유록>, 202-203쪽)¹⁶⁾

첫번째 여인, 곧 金縷의 부인의 말이다. 자신이 자결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자신을 죽게 한 사람은 남편인 김유와 아들 金慶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아들은 죽어 마땅하며 그 죄는 결코 씻기 어려운 죄라고 한다.

그녀는 이처럼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고 또한 그들은 비난 받아 마

16) “宗社蒙塵 慘不可道 嗟爾殞命 天耶鬼耶 苟求厥由則 致之者 有郎君是也 何則 台輔其位 體副其任 而莫察公論 偏懷私情 江都重任 付之嬌兒也 欣有富貴 樂醉花月 遠慮渾忘 軍務何知 江非不深 城非不高 而大事已謬 死亦宜矣 然唯人之過 在爾何責 嗟余殞命 甘爲自決 固所宜矣 無足恨也 惟爾獨子 生無輔國 死且有罪 千載惡名 鴻海何洗 疊恨盈襟 無日可忘”(표시된 쪽수는 김기동 편, 『필사본 고전소설전집』 3, 아세아문화사, 1980에서의 것이다. 이하도 마찬가지이다.)

평하다. 작자의 의식과 희생자 여인의 의식이 거의 부합하는 셈이다. 하지만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아무리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식인데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처럼 몰아세울 수 있었을까. 두번째 등장하는 여인이자 그녀의 며느리인, 김경징의 부인의 말처럼, 도망친 자들도 있는데 남편(자식)만 홀로 형을 받은 것에 대해 원통해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위 김유 부인의 말에는 작자의 목소리가 덧씌워져 있다고 보더라도 그리 잘못된 추론은 아닐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강도몽유록>의 작자가 굳이 그녀들을 내세워 자신의 남성 가족들을 비판하게 한 의도가 짐작된다. 그러한 설정이 그들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잘못이 결국에는 그들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 넣는 결과가 되었다는 논리이다.

작자의 그러한 의도는 다섯번째, 열두번째, 열세번째 여인의 말에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다섯번째 여인인, 윤방의 부인은 남편이 성문을 열어 주어 구차하게 삶을 도모했다는 죄로 염라왕으로부터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환생하지 못하리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반면 열두번째 여인은 아버지가 절의에 죽었으므로 극락 세계에서 仙遊하는 상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열세번째 여인은 그녀의 할아버지가 광해군때 조정이 혼탁한 가운데 혼자 깨어 있던 사람이어서 염라왕으로부터 천당에 들어가도록 명 받았다고 말한다. 작자는, 그 여인들 역시 절행을 위해 죽음을 감수한 이들이기는 하나, 궁극적으로는 死後의 돌아갈 곳이 남성 가족원의 절행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¹⁷⁾ 작자의 비난의 화살은 江都敗沒을 초래한 남성들, 나아가 그들을 지지한 조정 제신 및 그 당파¹⁸⁾를 향해 있는 것이다. 13명의 여인들이 실제 인물을 염두에 둔

17) <사씨남정기>의 사씨가 한미한 사족 집안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유연수 앞에서 떳떳해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녀의 아버지가 직언을 하다가 유배되어 절의를 지키며 죽었다는 데 있었던 점도 이와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다.

18) 이때의 조정 제신 및 그 당파란 김정녀의 지적처럼 인조반정때의 공신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김정녀, 앞의 책, 76-79쪽 참조.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러한 작자의 의도와 관련되리라 본다.

이처럼 희생자 여인들의 말 속에 작자의 목소리가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면 다음과 같은, 節死에 관한 여인들의 말도 같은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摩尼山에 숨었더니 바위굴이 깊지 않아 적의 칼끝이 앞에 있었지요. 義를 버리고 삶을 구하는 것은 차라리 한 번 죽는 것만 못하기에 절벽에 몸을 던져 백골이 티끌이 되었으나 이는 기꺼이 한 것이어서 한스러울 것은 없습니다. (<강도몽유록>, 212쪽)¹⁹⁾

그 높은 절의와 아름다운 貞烈에 하늘은 반드시 감동할 것이나 사람은 좇기 어려운 바니 죽었으되 죽은 것이 아니므로 무슨 한이 있겠습니까. 江都가 陷沒되고 남한산성이 위급하여 임금이 옥을 당했을 때 어떡했습니다. 國恥가 바야흐로 깊은데 충신의 절의는 만 명 중 한 명도 없었으며 貞操가 깨끗했던 것은 부녀자뿐이었습니다. 이런 죽음은 영광이라, 어찌 슬퍼하겠습니까. (<강도몽유록>, 219쪽)²⁰⁾

열번째 여인은, 어차피 죽을 것이라면 義를 택해야 마땅하며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 한스러울 것은 없다고 말한다. 나아가 열네번째 여인, 곧 기생은 오히려 그러한 죽음은 ‘영광’이라고까지 말한다. 영광, 다시 말해 ‘죽었으되 죽은 것이 아닌 것(死而不死)’, 이것이 그들의 죽음에 대해 스스로 내린 최종 평가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곧 작자의 평가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절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가 받지 못하는 경우는 죽어서까지 원통한 일이 된다. 열한번째 여인의 경우가 그러하다. 네번째

19) “隱於摩尼山 巖穴巖穴不深 賊鋒在前 舍義求生 不若一死 投於絕壁 白骨爲塵 是所甘也 無足恨矣”

20) “其所節義之高 貞烈之美 天必感動 人所難服 則死而不死 何恨之有 江都陷沒 南漢危急 主辱如何 國耻方深 而忠臣節義 萬無一人 貞操凜烈 惟有婦女 是死榮矣 何用憾憾”

등장하는 여인, 곧 왕비의 언니이자 重臣의 아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여인은 절사에 관한 더 기막힌 사연을 갖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자결을 권하였고 그 권유를 받아들여 자결을 한 것이어서 결국 자신의 의지에 의해 자결을 한 것은 아닌 셈이니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꾸짖었을 것임에 틀림 없을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사연은 당시 기록을 토대로 하여 작자가 삽입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연려실기술』에 따르면 사태가 닥치자 김경징의 아들 김진표가 집안의 여인들을 강박하여 자결하게 했다는 얘기가 전하는데, 그것에는 김경징에 대한 분노로 인해 세간에서 그 여성 가족원들의 절개까지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한다.²¹⁾ 작자는 그러한 구설수에 대해 죽은 이의 편에 서서 변호하고 있는 셈이다.²²⁾

강도의 여인들은 살아서도 그러했지만 죽어서도 열녀가 되어야 했다. 물론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은 잃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이면에 담긴, 烈과 節義에 대한 그들의 강박 관념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었을 것이다. 열과 절의에 대한 강박 관념, 아무리 작자의 목소리가 스며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은 그녀들의 진실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진실은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는 진실이었다. 그녀들의 죽음을 떳떳한 죽음으로 기린다는 명분 하에 이념적 죽음으로 포장한다면 그것은, 무서운 전례가 될 수 있었다. 그녀들의 죽음은 烈로 포장되어 다시 살아 있는 여인들에게 향해졌을 것이다. 작자는 궁극적으로는 그것까지 의도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²³⁾ 그녀들의 절의를 높이 평가하면

21)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연려실기술』 VI, 252쪽.

22) 조해란, 앞의 글, 348-350쪽에서는 아들의 강박에 의해 죽었다는 것은 여자로서 공적 명예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회마저 빼앗겨 버린 셈이므로, 이 부분은 인륜마저 저버리는 아들의 행위를 통해 정절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드러낸다고 보았다. 이 부분의 궁극적인 의미 해석은 정절 이념의 허구성으로 집약할 수 있기는 하나, 최소한 이 부분에 있어 작자의 의도는 그러한 구설수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내세우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할수록 그녀들의 남성 가족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어 갈 것이며, 여성이 지켜야 할 도리로서의烈 관념은 더욱 굳어져 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녀들이 죽음 앞에서 초연하였을 리 없었을 것이며 작자도 인간인 한 그 점을 전적으로 외면하였을 리 없다. 비록 그녀들의 발화가 작자의 의도에 의해 굴절되었다 하더라도 그 중에는 당시의 상황을 되새기는 인간 본연의 감정이 절실히 묻어낸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음 열세번째 여인의 말이 그러한 경우일 것이다.

다만 白髮 두 부모님과 젊은 낭군은 겨우 魚肉 신세는 면하였으나 험한 세상에 살아 남아 琴瑟의 소리가 처량하고 아침저녁 바라던 일이 끊어졌으니 오동나무에 가는 비 내리고 봄바람에 꽃잎 떨어질 때 이별의 눈물이 마를 때가 없고 이별의 한도 더욱 커집니다. 그런 즉 부모를 잊고 자결함은 불효라고 할 수 있고 낭군을 속인 것 역시 잘한 일은 아닙니다. 아! 나의 죄와 한이여! 어찌 죽히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강도몽유록>, 217-218쪽²⁴⁾

부모, 남편과 사별한 원혼의 하소연이지만 자세히 보면 당시 변란을 당하여 자결을 결심했을 때의 심정으로도 읽힌다. 자결이란 부모에게도 남편에게도 큰 죄를 저지르는 일이었지만, 그녀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살아서 돌아간다고 해도 예전처럼 지낼 수 없으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했기 때문이다. 불효와 이별의 눈물, 그리고 恨. 이것이야말로 당시 강도 희생자 여인들이 결코 떨쳐낼 수 없었던 인간 본연의 감정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비판과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던 <강도몽유

23) 이와 관련하여 장경남, 『병자호란의 문학적 형상화 연구 -여성 수난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1권 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3, 206쪽에서 <강도몽유록>의 창작 의도가, 전란으로 인해 무너져 가고 있는 의리와 지조를 여성들의 정절에 의탁해 회복시키는 데 있다고 본 견해는 음미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24) “但恨白髮雙親 年妙郎君 僅免魚肉 生存風塵 而聲淒琴瑟 望斷朝暮 則梧桐細雨 落花東風 別淚何乾 離恨倍增 然則忘親自決 可謂不孝 欺了郎君 亦爲不良 則嗟余罪恨 何足道哉”

록> 작자도 어찌할 수 없었으리라.

세번째 등장한 여인 역시 되돌릴 수 없는 남편과의 情을 여과 없이 토로하고 있다.

원앙 이불 속에서 즐거워 했던 것이 얼마나 되며, 青春의 簾幕과 白日의 樓臺에서 부귀영화를 같이 누리리라고 스스로 기억하였는데, 의외의 風塵으로 집안에 화가 미쳐 참혹해졌으니 나 같은 薄命한 이가 다시 누구 있겠습니까. 한번에 닳아 흩어지고 인간 세상과도 영원히 멀어졌습니다. 하늘이여, 어찌하리오. 다만 낭군은 비바람 속에도 홀로 살아남았지만 눈이 또한 어두워지고 부모를 영원히 잃었으니, 그 罔極하고 艱苦한 情狀은 衽일망정 잊기 어렵습니다. (<강도몽유록>, 205쪽)²⁵⁾

지내 놓고 헤아려 보면 부족하다는 생각만 들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즐거웠던 부부 생활이었다. 그러나 어찌하랴, 이미 과거의 일이 되고 만 것을. 살아 남기는 했으나 간고한 삶을 살아 가고 있음에 틀림 없을 남편을, 衽일망정 잊기 어려웠던 것이다.

강도패몰시 여인들이 접하게 된 상황은, 그리고 절사의 결과는 이처럼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급작스럽게 닥친 공포, 가족들에 대한 생각과 삶에의 갈망, 그러나 살 수도 죽을 수도 없었던 정신적 공황, 떠올리기만 해도 몸서리치는 일들을 그녀들은 겪고 느꼈던 것이다. 창작 의도는 다른 데 있었다 하더라도 <강도몽유록>의 작자가 그녀들의 인간 본연의 감정까지 외면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작자는 이 점을 의식하였던 것 같다. 그 결과 <강도몽유록>은 여타 몽유록과는 다른 결구를 보이게 되었다.

25) “鴛鴦衾裏 行樂幾何 青春簾幕 白日樓台 富貴繁華 長自爲期 意外風塵 家禍慘酷 則 如我薄命 更誰爲哉 一自魂散 人世永隔 天也奈何 但郎君也 風雨人間 單了獨存 眼且不明 永失父母 其所罔極之情 艱苦之狀 魂亦難忘”

IV. 역사적 상처 형상화의 실상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즐긴다. 서로 부담 없고 또 이야기해서 재미 있는 일화들일 경우는 특히 그러하다. 하지만 자신이 경험한 사건이 치욕스런 사건이거나 역사적으로 민감한 사건일 경우는 말을 아끼거나 침묵한다. 더구나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마저도 무시당한, 그래서 충격과 두려움으로 뇌리에 남아 있는 사건이라면 그것에 대해 말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아픔일 것이다.²⁶⁾ 그리고 그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지 않는 한 차라리 기억하지 않는 편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차라리 기억하지 않는 편이 나온 사건, 그것을 이야기하기는커녕 떠올릴 수조차 없는 사건, 江都의 失陷은 아마 그러한 사건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혼령으로 등장시켜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도몽유록>이 문제적인 작품인 것은 분명하다.

일단, 작자가 강도의 희생자인 여인들을 등장시켜 당시 정황에 대해 말하게 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은 수궁할 만한 서술 방식이다. 그때의 사건을 떠올리거나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이는,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자, 바로 그 사건을 겪은 자들뿐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인들의 죽음에 공감하는 관찰자로서의 몽유자를 내세워, 꿈을 통해 얘기하는 서술 방식을 취한 것은 작자 나름대로의 고민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살폈듯 작자의 궁극적인 의도가 희생자 여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처를 다독이며 그녀들의 부조리한 죽음 그 자체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그것의 이념성을 부각하고자 했던 것이다. 나아가 그녀들의 말을 통해 강화 패물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던 정치 세력의 권력성을 비판하려 했다.

작자의 이러한 의도는 일면 정당성을 지닌다. 강화 패물의 책임자들은

26) 인간에게 부조리한 죽음을 가져다 준 ‘사건’의 표상 문제에 대해서는 오카 마리 (김병구 옮김), 『기억 서사』, 소명출판, 2004, 64-73쪽 참조.

비난 받아 마땅한 자들임이 분명하며, 죽음의 이념성을 부각시킨 만큼, 살아 남은 자들 앞에서 그녀들도 떳떳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죽은 자들의 사연에 공감하고 진정으로 아픔을 공유하는 일이었던 것은 아니다. 상처의 원인을 밝히는 일과 상처를 달래는 일은 다른 성격의 일인 것이다. 더구나 그 상처란 애초에 치유 불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그 둘 사이의 거리는 엄연히 존재한다. 죽은 자의 존재론적 고뇌를 도외시하고 그 죽음의 원인 및 책임 소재 문제에 대해 말할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 죽음을 이용한다는 것은 가당찮은 일이다. <강도몽유록>의 작자도 이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강도몽유록>은, 그로 인한 작자의 부담감이 서술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여타 몽유록과 다른 특이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몽유자를 淸虛라는 이름의 ‘승려’로 설정한 것은 그러한 부담을 의식했다는 증거이다. 사대부가 아니며 磊落不羈한 성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몽유자의 일반적인 성격에서 벗어난 인물이지만²⁷⁾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편견 없이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또한 <강도몽유록>의 몽유자는 철저히 곁에서 지켜 보기만 한다. 그는 꿈 속 사건에 거의 관여하지 않으며 꿈을 깨고 난 뒤에도 사건에 대한 비판이나 소감을 피력하지 않는다.²⁸⁾ 어디까지나 목격자로서 상황을 전달하는 데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감추어진 진상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작자는 자신의 모습을 최대한 감추고자 했다. <강도몽유록>이 독자에 의해 實記처럼 읽혀지기를 원했던 것이다.

다음과 같은 참혹한 장면 묘사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된다.

이에 걸어 나가 살피본즉 열 자 남짓한 줄과 한 자쯤 되는 칼끝이 가

27) 신재홍, 앞의 책, 128쪽.

28) 서대석, 앞의 글, 131-132쪽.

는 목에 매어 있기도 하고 바스라진 뼈에서 피가 나기도 하며 머리가 모두 부수지기도 하였으며 입과 배에 물을 머금기도 하여 그 참혹한 모습은 차마 볼 수가 없었고 또 이루 다 기록할 수도 없었다.<강도몽유록>, 202쪽)²⁹⁾

달이 밝은 밤에 얼핏 잠이 든 몽유자가 본 장면이다. 이러한 장면은 <달천몽유록>이나 <피생명몽록>에서도 발견되는 바, 전란으로 인한 참상을 여실히 전달하는 장면이다. 차마 볼 수 없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 작자는, 이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에 토대를 둔 것이고 자신은 감추어진 진상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의 숭엄한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독자에게 알리고자 한다. 작자는 이러한 장치를 통해 어느 누구도 쉽게 꺼내지 못할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다.

<강도몽유록>은 특히 이와 같은 참혹한 장면의 묘사에 신경을 많이 쓴 작품이다. 자신의 사연을 들려 주기 위해 등장하는 여인들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로 유혈이 낭자하며 비정상적이다. 독자들은 이러한 참혹상을 접하면서 감각적으로 육박해 오는 전율을 느꼈을 것이다. 실상이 이와 같다고 느낄 때 그 앞에서는 그 누구도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³⁰⁾ 실은 작자의 의도도 이러한 효과를 유발하는 데 있었으리라

29) “於是 進其步 觀其視 則丈餘之索 尺許之鋒 或係於纖頭 或血於粉骨 或頭腦盡破 或口腹含水 其慘惻之形 不可忍視 亦不可勝記也”

30) 이러한 장면 묘사는 전란을 배경으로 한 몽유록에서 더러 발견되는 바이다. <獐川夢遊錄>(尹繼先)의 “급히 숲속으로 피하여 그들의 하는 짓을 엿보니, 서로 설레고 울부짖는데 겨우 그 형체를 분간할 수 있었다. 혹은 머리가 없는 자, 혹은 오른팔이 잘렸거나 왼팔이 잘린 자, 혹은 왼발을 잘린 자, 마른 발을 잘린 자 혹은 허리는 있으면서 다리가 없는 자, 혹은 다리는 있으면서 허리가 없는 자, 혹은 배가 팽팽하여 비틀거리는 자는 아마 물에 빠진 것이리라. 모두 머리카락을 온통 얼굴에 풀어헤치고, 비린내 나는 피가 사지(四肢)에 쏟아져 참혹해서 차마 볼 수가 없다.(민족문화추진회, 『국역 대동야승』 VII, 1973, 299쪽)”는 등의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몽유록의 이러한 장면들이 비장미를 야기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신선휘, 『17세기 필기류와 몽유록의 대비연구 -전란대응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1, 18쪽의 지적이 이미 있었다.

생각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작자는 물론 몽유자조차도 사건 자체로부터 거리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참혹상은 리얼하기는 하다. 하지만 엽기적이라고는 할 수 있을 지언정 현실적이라 할 수는 없다. 현실주의적 충동에 기인한 것은 더더구나 아니다.³¹⁾ 몽유록이라는 갈래의 성격 자체가 현실성보다는 이념성을 추구하는 갈래인 데다, <강도몽유록>에서 이러한 참혹상을 강조한 본의는 강도실함에 책임을 지닌 자들에 대한 우의적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작자는 이처럼 몽유자로서 거의 방관자에 가까운 승려를 내세우고, 참혹상을 드러내어 독자에게 충격을 가해 꿈 속 사건을 최대한 실감 나게 전달하면서, 자신은 사건과 거리를 유지하고자 했다. 이렇게 객관성을 가장한 상태에서 등장 인물의 발화를 자신의 지배 하에 두고자 했다. 하지만 등장 인물의 발화 모두를 장악하지는 못했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살핀 것처럼 희생자 여인들의 인간 본연의 감정은 그것대로 발화 속에 묻어 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그녀들의 죽음이 작자가 파악하고 있는 것 이상의 심각한 문제성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도몽유록>의 결말 부분이 여타 몽유록과 다른 것은 필연적 귀결이었는지도 모른다.

(…) 國恥가 바야흐로 깊은데 충신의 절의는 만 명 중 한 명도 없었으며 貞操가 곳곳했던 것은 부녀자뿐이었습니다. 이런 죽음은 영광이라, 어찌 슬퍼하겠습니까.

이 말이 막 끝나자 좌중의 부녀자들이 일시에 통곡했는데 그 소리가 너무나 슬퍼서 차마 들을 수가 없었다. 선사는 혹시 알아채는 이가 있을까 두려워 숲 아래 숨어 있다가 날이 밝기를 기다려 물러 나왔다. 갑자기 놀라 일어나 깨어보니 한바탕 꿈이었다.(<강도몽유록>, 219-220쪽)³²⁾

31) 신재홍, 앞의 책, 126쪽.

32) “國耻方深 而忠臣節義 萬無一人 貞操凜烈 惟有婦女 是死榮矣 何用憾憾 此語方訖 座中婦女 一時痛哭 其聲慘測 不忍聞也 禪師 或恐有知 隱於林下 待天之曉 乃

열네번째 여인인 기생은 여러 여인들의 말을 듣고 ‘이런 죽음은 영광이라(是死榮矣)’라며 위로한다. 이 기생은 실제의 인물을 모델로 했을 다른 여인들과 달리 작자의 분신이자 가공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그녀를 내세운 것은, 철저한 방관자로 일관하는 몽유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담을 또다른 인물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희생자 여인들에 대한 평가는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그들과 함께 죽음을 당한 또다른 여인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결말은 애초에 작자가 의도하지 않았을 방향으로 뒤틀어졌다. ‘이런 죽음은 영광’이라는 말을 듣고 좌중의 여인들이 일시에 통곡하고 있는 것이다. 그 소리는 너무나 슬퍼 차마 들을 수 없는 소리였다. 이때의 통곡은 마지막 여인의 말로 인한 위안의 통곡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아픔의 실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헤아리지 못하리라는 설움의 통곡인가. 그 어느 쪽이든 통곡소리는 작품이 끝나더라도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사건 외부의 그 어떤 기억이나 재현도 사건의 본질에 다가갈 수는 없는 것임을 말해 줄 것이다. 몽유자가 그곳에서 자신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여 숨었듯이, <강도몽유록>의 작자 역시 서둘러 작품을 끝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³³⁾ 작자가 형상화한 통곡소리는 또다시 작자에게 되돌아와 더 이상의 말들을 덧붙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남는 것은 그러한 죽음에 부여된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그 의미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살아 있는 자들을 위해 봉사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차마 들을 수 없는’ 그녀들의 통곡소리는 여전히 九泉에서 메아리칠 것이다. 역사적 상처의 아픔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이처럼 쉽

退而出 忽然 驚起覺卽一夢也”

33) 이러한 <강도몽유록>의 결말은, 죽은 자들에 대한 祭文으로 끝을 맺는 <달천몽유록>과, 몽유자의 위로와 이에 대해 죽은 자가 감사하는 말로 끝을 맺는 <괴생명몽유록>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결말이다. 일반적인 몽유록의 관습과도 다르다.

지 않은 일이며 결코 완결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강도몽유록>은 몽유록 중에서도 독특한 성격을 지닌 문제작이다.

V. 맺음말

꿈이라는 문학적 장치를 통해 죽은 자의 혼령을 불러내어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면서 작자의 의도를 구현하는 것은 몽유록의 일반적인 문법이다. <강도몽유록> 역시 강도실함의 희생자였던 여인들의 원혼을 등장시켜 말하게 하고 있으므로 몽유록의 일반 문법을 따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강도몽유록>은 여타 몽유록과 다른 독특한 성격을 지닌다. 본고는 이 점에 집중하면서 <강도몽유록>의 특성을 드러내는 한편, 문학에 있어 역사적 상처 형상화 방식의 한 문제를 드러내어 보고자 했다.

강도실함의 주 희생자가 된 여인들은 그 캐릭터 자체가 여타 몽유록 속 등장 인물과는 다르다. 이들은 어찌할 수 없는 사태에 내던져져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희생자가 된, 부조리한 죽음을 당한 여인들이기 때문이다. 희생자 여인들의 발화를 분석해 보면, 여기에는 강도실함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이념적 죽음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려는 작자의 의도가 반영된 경우도 물론 있었지만, 가족들에 대한 생각과 삶에의 갈망, 그러나 살 수도 죽을 수도 없었던 정신적 공황 등 인간 본연의 감정이 그대로 토로되는 경우도 있었다. 작자도 후자의 경우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작자가 철저한 방관자적 몽유자를 내세운 것, 등장 인물의 비정상적 외모 묘사를 비중 있게 제시한 것, 통곡소리로써 짙은 여운을 남기며 작품을 급속히 끝맺고 있는 것 등이 이와 관련되리라 보였다. 그것은 작자가 자신의 모습을 숨김으로써 사건의 실감도를 높이는 한편, 역사적 상처 말하기에 근원적으로 내재된 인간적 책임을 조금

이나마 모면해 보려는 무의식적 행위에 말미암는다고 생각되었다.

희생자 여인들의 죽음은 사건 외부적 시각을 떠나 그것 자체로서 기억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공감도 애초에 불가능하다. 사건 외부에 있는 <강도몽유록>의 작자가 사건 내부로 들어 가기 위해 몽유록의 구조를 수용한 것은 납득할 만하다. 하지만 피해 의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역사적 상처를 허구적으로 형상화한다는 것은 부담스럽고 또한 조심스런 일이다. 그것을 통해 또다른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작자의 입장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나아가 문학적 감염력으로 인해, 그 속에 그려진 작품 세계는 작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설 수도 있다. 작자는 그 나름대로의 의도를 작품 속에 구현해 내고자 했고 소기의 목표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오히려 작품 속의 세계에 압도 당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강도몽유록>은 여타 몽유록과 구별되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 작품으로서, 굳이 갈래적 특성과 관련지어 말한다면, 서사성이 더 강화된 몽유록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주제어 : <강도몽유록>, 몽유록, 강도 실험, 역사적 상처, 형상화 방식

참고문헌

- 김광순 역주, 『산성일기』, 형설출판사, 1985.
- 김기동, 「<강도몽유록>고」, 『논문집』 2, 동국대, 1965, 125-139쪽.
- 김기동 편, 『필사본 고전소설전집』 3, 아세아문화사, 1980.
- 김정녀, 『조선후기 몽유록의 구도와 전개』, 보고서, 2005.
-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연려실기술』 VI, 1967.
-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대동야승』 VII, 1973.
- 박명순, 「전쟁소설로서의 <강도몽유록> 연구」, 『인문과학연구』 17, 조선대 인문과학연구소, 1995, 197-213쪽.
- 서대석, 「몽유록의 장르적 성격과 문학사적 의의」, 『한국학논집』 3, 계명대, 1975, 129-160쪽.
- 신선희, 「17세기 필기류와 몽유록의 대비연구 -전란대응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1, 7-35쪽.
- 신재홍, 『한국몽유소설연구』, 계명문화사, 1994.
- 신해진, 『조선중기 몽유록의 연구』, 박이정, 1998.
- 양언석, 『몽유록소설의 서술유형연구』, 국학자료원, 1996.
- 유승주, 「병자호란의 전황과 금화전투 일고」, 『史叢』 55, 역사학연구회, 2002, 389-435쪽.
- 장경남, 「병자호란의 문학적 형상화 연구 -여성 수난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1권 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3, 193-218쪽.
- 장준기, 「임·병양란 관련 몽유록계소설 연구」, 『국어국문학』 18, 동아대 국어국문학과, 1999, 89-110쪽.
- 정학성, 「몽유록의 역사의식과 유형적 특질」, 『관악어문연구』 2,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77, 277-298쪽.
- 조현설, 「형식과 이데올로기의 불화 -16세기 몽유록의 생성과 전개-」, 『민족문학사연구』 25, 민족문학사학회, 2004, 64-85쪽.

조혜란, 「〈강도몽유록〉 연구」, 『고소설연구』 11, 한국고소설학회, 2001, 329-356쪽.

지연숙, 「〈괴생명몽록〉 연구 -작자의 창작의도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23, 우리어문학회, 2004, 373-392쪽.

한명기, 「병자호란의 패전과 출사관」, 『명지사론』 14·15, 명지사학회, 2004, 205-225쪽.

한석수, 『몽유소설』, 개신, 2003.

오카 마리(김병구 옮김), 『기억 서사』, 소명출판, 2004.

<Abstract>

Historical Wounds Observed in *Gang-do-mongyurok* and Their Representation

Jeong, Choong-Kwon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examine how <Gang-do-mongyurok> represents the historical wound of the fall of the Ganghwa Island and to explain characteristics that distinguish it from other works of Mongyurok.

Women victimized by the fall of the Ganghwa Island are different by nature from figures in other works of Mongyurok. They were thrown into an irresistible situation and victimized innocently by irrational force. When the victimized women's utterances are analyzed, they sometimes of course reflect the author's intention to find out who are responsible for the fall of the last fortress and to give ideological meanings to the women's death, but sometimes expose the innate human natures like the thought of families, desire for life, and mental panic between life and death. The author could not avert his eye utterly from the latter. That the author put up the dreamer as an absolute onlooker, that the figures' abnormal appearances were described empathetically, that the story was hurriedly wound up with intense suggestiveness of wails, etc. are all considered the author's attempt to enhance the reality of the incident through hiding himself and, at the same time, his unconscious efforts to avoid fundamentally inherent human responsibility for the historical wounds told in the

story. Thus, <Gang-do-mongyurok> is regarded as an epic work.

Key Words : *Gang-do-mongyurok*, *Mongyurok*, the fall of the Ganghwa Island, the historical wound, representation